

‘교육발전특구’로 지역인재 유출 막는다

교육부·지방시대위, 추진계획 발표 비수도권지역 교육감·지자체장 신청 공교육 강화·대학 내실화 종합지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산업·거주·건강·문화생태계 정비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젊은 부부들이 요구하는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 인가학과와 지역인재전형 등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이지 않으면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교육 분야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교육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를 추진할 때 지역의 교육·정주여건 미비로 우수인재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선정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초·중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학교육 내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종합 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젊은 부부의 수요가 큰 유아교육과 돌봄 분야의 경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유치원·어린이집 교육과정과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식이다.

초·중·고교 교육의 경우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우선 적용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공교육 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가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활용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 인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첨단분야 등 인가학과와 지역인재 입학전형을 확대해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평가·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기초·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구체적인 혁신 계획을 검토해 2024년에 특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상하는 모델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신청 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구 운영 기간은 3년이며, 평가를 거쳐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장상은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가 자사고, 특목고를 만들려는 제도 아니냐고 하는데, 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라며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를 공교육 틀 안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전지훈련·스포츠대회 673억 경제 효과

연간 2290개 팀 73만명 유치...최우수 강진, 우수 해남·영광

전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전지훈련과 스포츠대회 참여를 위해 2290개 팀 73만3000명이 전남을 찾아 673억여 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2022시즌 전지훈련 등 참가인원(37만명)보다 97.8%나 늘어난 규모로, 전남이 최적이 전지훈련지 및 각종 대회 개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진 축구전용경기장,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해남우슬경기장, 영광 스포티움 등 스포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전남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맛있는 음식, 편리한 교통 여건 등이 이 같은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시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한몫했다.

전남도가 지난 1년간 시군의 전지훈련 등 내·외국인 유치, 우수사태 발굴, 선수단의 관광문화 시설 이용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최우수상은

강진군, 우수상은 해남군·영광군, 장려상은 순천시·구례군, 노력상은 여수시·보성군이 선정됐다.

전지훈련 주요 운동 종목은 축구, 야구, 태권도, 농구, 배드민턴으로 전체 유치 종목의 65.7%를 차지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전북, 광주, 경북 순으로 전남을 찾았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지훈련 유치가 어려웠던 해외선수단도 전남을 찾았다. 일본 이시다클럽 탁구팀 230여 명은 강진군을, 대만폴리스FC 배구 선수 140여명은 영광군을, 태국폴리스FC 200여명은 완도군에서 훈련하는 등 총 인원이 1300여 명에 이른다.

박호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체육 기반시설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노사민정 “광산구, 고용위기·특별지원 지역 지정” 촉구

광주 노사민정이 법정관리 중인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들이 밀집한 광산구에 대한 특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민정은 2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광산구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400여개 협력사 1만8000명 고용자가 극단적인 생계 위기에 놓여있고, 1300억원 1차 협력업체 미납 대금으로 중소기업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역산업의 토대인 가전산업의 붕괴를 막으려면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 경영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호소문 발표에는 광주시의회 새로운 노동특별위원회, 광주 경제진흥생생자리재단, 광주 테크노파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북구청, 대우위니아그룹 계열사 협력업체 32곳 등 140여개 기관, 단체, 기업이 참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해양에너지, 물가상승에 도시가스 인상 불가피

광주시의회·시민단체 “배당금 3배 올리고 요금도 인상” 비판

광주 전역과 전남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해양에너지가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어 광주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해양에너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부 회계법인 용역 결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1%, 소매요금 기준으로 11.7%, 세대당 월 43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인상 요인으로는 ▲2017년 이후 동결로 인한 정산비용 누적 ▲국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인상 ▲전열기구 보급 확대와 겨울철 기온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정체 ▲고객센터 수수료 증가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5년세 택시요금은 54%, 최저임금 49%, 소비자물가 14% 상승 등을 요금 상승 요인

으로 꼽았다. 또한, 같은 기간 8만50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소의계중 요금 103억원을 감면하는 등 에너지 복지에 힘써온 점도 요금 현실화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정회 대표이사는 맥쿼리의 '황제 배당' 논란에 대해서는 "맥쿼리 인프라는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 펀드여서 각종 규제를 받도록 돼 있고, 해양에너지 배당금은 주주지분에 따라 국민연금, 미래에셋 등 내국인이 86%, 외국인인 13% 정도며, 그 중 맥쿼리는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의회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은 "맥쿼리가 2년 전 해양에너지 지분 100%를 인수한 뒤 '황제 배당' 논란을 낳는데 이어 이제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배당금은 3배 가까이 올려놓고 시민들의 가스요금을 올리겠다는 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일 오전 광주 남구 빗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제1회 빗고을 세대공감 페스티벌'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장구공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광주시 '빗고을 세대공감 페스티벌'

빗고을노인건강타운서 '세대 이음·화합' 어울림 한바탕

광주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이 노대들 야외잔디장에서 1·2·3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세대공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정은 시교육감, 김대삼 사회서비스원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어르신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세대이음 희망 업(Up)', '세대화합 예스(YES)', '세대갈등 노(NO)'를 구호(슬로건)로 내건 이날 행사에서는 함께 가지 선인, 1·2·3세대 문화공연, 세대 어울림 부대행사(에코존, 세대이음존, 고령친화존, 푸드존)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 등이 진행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특히 '함께 가지 선인'에서는 어린이 3명, 청소년 3명, 중장년 3명, 어르신 3명 등 1·2·3세대가 함께하는 '세대이음 희망 업(Up)'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대 이음과 화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플리마켓'을 운영하고,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쓰기로 했다.

한편 빗고을노인건강타운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여가·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 7만여 명, 1일 2800여명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복합여가시설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조직변경 공고

당 회사는 2023년 11월 2일 사원총회에서 주식회사 광운에어메디텍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유한회사 광운에어메디텍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66번길 20, 3층 (신안동)
대표이사 안연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최은경(561224-2XXXXXX)
• 최후속인: 목포시 서산로 424(서산동)
피상속인 방 최은경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밀원 목포지원 2023년296호로 신청하여 2023년 10월 3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1월 3일
• 상속인: 1. 최효순(461011-1XXXXXX) 경복울진군 기장면 양양로1길 38(양양동)
2. 최태순(590111-1XXXXXX) 서울 강남구 언주로 3, 5층 201호 (개포동, 우성(차이마트))
• 신고기간: 2023. 11. 3. ~ 2024. 1. 13.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1. 최효순의 주소

합병에 따른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근흥주택(갑)과 주식회사 오선부(을)는 2023년10월 30일 개최된 각사의 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을)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이 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야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3일
"갑" 주식회사 근흥주택 200111-038765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55번길 1, 402호(영촌동, 동우아파트)
대표이사 박형민
"을" 주식회사 오선부 204611-005294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55번길 1, 402호(영촌동, 동우아파트)
사내이사 박형민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강서숙(660501-1XXXXXX)
• 최후속인: 전남 영안군 사동면 봉소리 986
피상속인 방 강서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밀원 목포지원 2023년265호로 신청하여 2023년 10월 3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11월 3일
• 상속인: 1. 강수영(690120-2XXXXXX) 서울 광진구 독성로44길 3(차양동)
2. 강은숙(781216-2XXXXXX)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54-24, 104동 605호(용남동, 우방아이유웨)
• 신고기간: 2023. 11. 3. ~ 2024. 1. 13.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2. 강은숙의 주소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료기관4개입주 메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러)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 통 305-1920 • 문 209-1900 • 팩 525-0761 • 신 222-9171 • 영 571-7658 • 모 269-7601 • 영 433-1503 • 우 신 433-1503
동구	• 남 673-9836 • 통 222-9054 • 팩 225-6001 • 영 433-1503 • 우 신 433-1503
남구	• 남 673-9836 • 통 222-9054 • 팩 225-6001 • 영 433-1503 • 우 신 433-1503
서구	• 경 382-5788 • 상 무 372-2352 • 팩 369-1625 • 통 376-7153 • 차 376-6511 • 영 603-0311 • 화 369-1625
광산구	• 통 952-1687 • 팩 950-1920 • 청 973-2900 • 화 955-0451 • 경 신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광주일보 문화매체발전기

先州日報 **이날**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